

「제2의 식목, 숲가꾸기사업」이 본격 추진된다

요 약

- 새 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,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「제2의 식목, 숲가꾸기(育林)사업」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.
-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,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.

1. 숲가꾸기사업의 장기 국가정책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배경

- '70~'80년대 「제1의 식목사업」이라고 할 수 있는 치산녹화사업의 추진으로 황폐된 산림이 녹화되고 이제 왕성하게 자랄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나

※ 30년생 이하의 유년기, 청년기의 산림이 전체산림의 80% 차지

- 농산촌 인력부족, 예산부족 등으로 산림을 제대로 가꾸어 주지 못하여 뻣뻣히 들어선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산림의 경제적·환경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

※ 시급히 숲아베기를 해주어야할 산림은 106만ha에 달하나 매년 2만ha 밖에 못해줌

-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실업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의 숲을 가꾸어주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, 숲가꾸기사업의 고용효과와 경제성, 공익성 등이 높이 평가됨

※ '98~'99 2년간 연인원 632만명을 고용, 19만ha의 산림을 가꾸어줌

-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실업대책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중앙부처시행 공공근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음

※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비(5,300억원)의 32%인 1,589억원을 숲가꾸기사업에 투자

- 이에 따라 정부는 녹화된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하여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기

위하여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일시적인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「제2의 식목, 숲가꾸기사업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추진목표

- 숲가꾸기를 통하여 350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조기 육성하므로써 선진국의 격에 맞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
 - ※ 숲가꾸기 대상지 : 280만ha (이중 시급한 숲아베기 대상지 106만ha)
- 근로의욕과 작업능력은 가진 저소득계층의 실업자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능인으로 양성 전업임업노동자로 고용

○ 추진방향

- 연간 12천명을 고용하여 10만ha의 숲가꾸기 실시
- 숲가꾸기 대상지중 시급히 숲아베기를 해주어야할 106만ha 우선 실시
- 연간 2400명의 저소득계층 실직자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양성
- 단순 인력작업에서 기계작업으로 전환 노동생산성 및 효율성제고

○ 기대효과

- IMF이후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으로 정부실업대책 및 사회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 - ※ 매년 12,000명에게 연평균 250일의 일자리 제공

- 매년 10만ha의 숲의 경제·환경적 가치 증진

※ 옹이없는 대경재 생산으로 경제적 가치는 3배, 물·탄소저장 등 환경 공익적 가치 2배 증진

매년 10만m³의 간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외화절감과 환경농업에 기여

- 기술적인 산림작업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관리

2.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

○ 추진실적('98~2000년)

구분	계	98년	99년	2000년(계획)
예산(백만원)	390,443	54,894	176,600	158,949
연고용인원(천명)	10,619	1,486	4,833	4,300
상시투입인원(명)	-	10,000	20,000	18,000
숲가꾸기(ha)	301,431	66,639	127,792	107,000
산물수집(m ³)	263,954	43,730	120,224	100,000
기술교육인원(명)	10,189	1,454	4,235	4,500

○ 추진성과('98~'99)

- 중앙부처 시행사업중 가장 많은 실직자 632만명을 고용

※ 특히 실직고통이 큰 노숙자(889명), 건설일용근로자(1,761명), 폐탄광지역 실업자(107명) 등을 우선 고용

- 19만ha의 숲을 가꾸어 경제적 가치 3배, 환경적 가치 2배 증진

- 간벌재 등 숲가꾸기산물 16만m³을 수집하여 표고자목, 펄프재, 원주가공목, 톱밥원료로 공급하여 외화절감 및 환경농업 확산 기여

- ※ 일부 근로자들은 목가공품 제작기술을 습득하여 자활 추진
- 근로자 기술교육을 연차별로 실시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육성
- ※ '99년까지 기술교육이수 근로자 : 5,700명
- “생명의 숲가꾸기국민운동” 등 NGO와 협력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

- 숲가꾸기사업은 우리나라 임업에 기초를 다지면서 향후 고용창출로 이어줄 수 있는 사업임
- ※ 특히 주요 타켓 실업자에 대한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의 효과가 큼
- 숲가꾸기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며, 이들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다른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.

○ 2000년 추진계획

- 1,589억원을 투자 전국 850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430만명의 실직자를 고용하고, 11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가꾸어 줄 계획임
- 숲가꾸기에 참여 실직자 4,500명에 대한 임업기능인 훈련 실시
- 10만㎡의 숲가꾸기 부산물(가지, 줄기 등)을 톱밥, 칩, 유기사료, 목가공품 등으로 활용 수질정화, 환경농업 확산, 국내재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

〈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〉

- 조사기간 : '98. 5. 30 ~ 6. 2.
- 조사방법 : 전 화 면 접 (Telephone Interview)
- 표본크기 : 500명 (모집단:전국의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)
- 표본추출방법 : 지역별 비례할당추출법 (Quota Proporsionate Sampling)
- 조사결과
 - 조사자의 85%가 숲가꾸기 사업에 계속 참여 희망
 - 조사자의 95%가 사회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답변
 - 조사자의 52%가 숲가꾸기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변
 - 조사자의 56%가 임금수준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
 - 조사자의 81%가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답변

3. 숲가꾸기공공근로자사업 평가

〈노동부 모니터링센터 평가결과〉

- 조사기간 : '99. 8. 2 ~ '99. 8. 24.
- 평가장소 : 서울, 경기, 강원지역 사업장 4개소
- 평가결과
 - 노동강도 면에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작업환경도 열악하고, 위험성도 높은 사업임